전두환 5·18 사살명령 밝혀질까

5·18 진상조사위 구성…한국당 반대로 8개월째 표류

국방부 "진상조사위 본격 구성되면 적극 협조할 것"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와 '사살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군 당국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비행계획서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들이 확인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 내부에) 준비위원회가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고 조사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이 8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TF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확보 등 진상규명위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 국방부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가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그러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TF 소속 현역·공무원의 파견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두환씨는 1980년 5월21일 정오께 헬기를 타고 K57 광주비행장에 왔다. 오자마자 비행단장실에서 약 1시간 회의를 열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를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전씨와 정호영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등 4명이 회의를 했다. 회의가 이뤄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21일 오후 1시 집단 사살이 이뤄진 정황으로 미뤄 전씨가 사살을 명령하려고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광주·전남 사립대학 인권침해 학칙 '버젓'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칙을 버젓이 운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지역 주요 사립대를 대상으로 학칙을 조사한 결과 집회와 결사, 표현의 기본권에 대해 모두 사전승인과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학생인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광주가톨릭대를 비롯해 광주대, 동강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는 학교 집회와 행사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돼 있고, 학생회나 학생단체 결성·구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학교도 동강대와 서영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 등 5곳에 달했고, 국립대인 광주과학기술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 조선대와 광주여대, 남부대 등 10곳은 간행물 발행과 편집 등에 대한 승인을 명시했고, 동강대 등 3곳은 학생의 정치참여와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했으며 서영대와 송원대는 전시, 재난 등을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인호 기자

짝짓기하는 붉은점모시나비 14일 새벽 경북 의성군 한 야산 숲속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붉은점모시나비의 짝짓기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초등학교도 학폭으로 교육 마비…교장 87% "심각"

초등학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교육활동·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자 2134명(69%)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1745명(81.8%)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장 1537명(86.6%)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심각'은 58.5%, '심각'은 28.1%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는 2938명(95%)이 찬성했다. 이 중 2521명(97.1%)은 "학폭위 이관이 학교업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한초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설문 응답자 83.7%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은 교우관계 개선 등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도록 법을 추가로 개정하는데 찬성을 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교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간 사안은 무의식 중에 일어난 단순 행동이나 일회적인 장난인 경우가 많다"며 "학폭위에서 '조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어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나이가 어릴수록 심리적 후유증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초협은 또한 수사권이 없는 학교가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까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유관기관이 개입해 처리하는 것이 예방적 효과도 높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美 알래스카서 경비행기 2대 충돌 5명 사망

미국 알래스카주 남부에 있는 케치칸 지역에서 관광용 경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5명이 사망했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알래스카주 최 남단에 위치한 케치칸 인근에서 '프린세스 크루즈' 소속 11인승 경비행기가 알래스카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로얄 프린세스' 소속 5인승 수상비행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로얄 프린세스' 비행기에 타고 있던 관광객 4명과 조종사 1명 등 5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린세스 크루즈 소속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은 현재 구출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승객 1명과 조종사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행사측은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나해구에서도 비닐봉지 쓰레기 발견

지구에서 가장 깊은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N은 미국의 해저탐험가 빅터 베스코보(53)가 지난 1일 1인용 잠수정을 타고 마리아나 해구 서남단의 챌린저 딥(Challenger Deep) 바닥을 탐험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곳의 깊이는 1만927m로, 이는 인류 역사상 잠수 최고기록이다.

베스코보는 챌린저 딥에서 약 4시간동안 머물며 지구 생명 기원의 단서를 제공할 새로운 종의 생명체 4종을 발견했다. 그리고 비닐봉지와 사탕포장지들도 발견했다고 한다.

해군출신의 사업가이자 탐험가인 베스코스는 마리아나 해구 이외에 대서양의 푸에르토리코 해구, 남대서양의 스카치 샌드위치 해구, 인도양의 자바 해구 등도 탐험했다. 오는 8월에는 북극해의 몰리딥(Molloy Deep)'도 탐험할 예정이다.

두리안 악취에 캔버라대 도서관 대피 소동

악취로 유명한 과일 두리안으로 인해 호주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대피 소동이 일어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10일 호주 캔버라 대학교에서 두리안 조각 때문에 소방 당국이 대피 작전을 벌였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일 오후 호주 수도 캔버라의 소방대는 캔버라 대학 도서관에서 강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만발의 준비를 한 채 출동했다. 도서관에는 대피 조치가 내려졌고 긴급 구조대는 위험 물질 전담 대원이 건물을 수색하며 '대기 분석'(atmospheric monitoring)을 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냄새의 근원이 드러났다. 두리안이었다. 도서관 직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두리안은 도서관 2층 통풍구 근처에 버려져 있었다.

대기중 이산화탄소(CO2)량 415ppm 돌파

대기중 이산화탄소(CO2)량이 지난 11일 1958년 관측 이후 처음으로 415ppm을 돌파하며 인류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다.

13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관측소(Mauna Loa Observatory)'에서 지난 11일 측정한 CO2 일일 평균 농도가 415.26ppm을 기록했다.

이는 적어도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한 1만년만에 처음이자, 호모 사피엔스에서 인류가 진화한 80만년만에 가장 높은 CO2 농도라고 CNN은 전했다.

기상학자 에릭 홀타우스는 "300만년전 신생대 3기 플리이오세 기간동안 지구의 온도는 현재보다 2~3도가 높았는데 그 당시 이산화탄소량은 310ppm에서 400ppm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번 측정량은 그것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는 이같은 지구를 상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플라이오세 당시 북극은 얼음이 아닌 나무로 덮혀있었고 여름 평균기온은 15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지구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25m 더 높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시스